

2021년 6월 23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출진흥과 과장 김재형(044-201-2171), 사무관 김기성(2176) / 제공일: 6월 23일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하반기 수출 물류에 물꼬를 트다!

- HMM과 협업, 하반기 미주노선 농식품 전용 선복 확보 -
- 7월중 농식품 전용 쿼터 배정 물량 첫 출항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농식품부는 aT와 함께 해수부-HMM(舊 현대상선)과 협업하여 하반기부터 미주로 운항하는 임시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 쿼터 물량으로 월 200TEU(주 50TEU)를 확보, 7월부터 시범운영

○ 또한, 농식품 전용 “선박수출지원 신청 시스템”을 자체 구축하여 선복 회차별 조회·신청 등 편의도모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최근 미국노선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로 운임상승, 컨테이너 부족 등에 따른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-HMM과 협업하여 하반기부터 미주로 운항하는 임시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*(컨테이너) 쿼터(quota) 물량을 확보·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선복(船卜): 배에 실는 짐

○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전용 쿼터 물량은 월 200TEU(주 50TEU)이며, 이는 신선농식품 하반기 수요물량의 약 50% 수준으로 수출업체 물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.

* 미국 수출 신선농식품 연간 선복(컨테이너) 수요는 4,666TEU(38.4천톤), 그 중 하반기(7~12월) 신선농식품 선복 수요량은 2,282TEU로 추정

** TEU: 길이 20ft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(Twenty foot Equivalent Units)

○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쿼터 물량은 6월말부터 수출 업체로부터 선복 신청을 받아 내달 7월 17일 첫 출항한다.

□ 또한 농식품부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에 “선박수출지원 신청 시스템(가칭)”을 자체 구축하였으며, 농식품 수출 전용 선복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선복 신청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.

○ 농식품 선복 물량은 선착순 배정이나, 특정업체(품목)에 과도하게 편중된 물량 신청시 조정, 추석 성수품 우선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.

□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“농식품 부분으로 확보한 선복 물량이 수출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.”면서

○ “향후 HMM과 업무협약 추진, 임시노선 선복 쿼터물량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임시노선 뿐만 아니라 정기노선 선복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”이라고 밝혔다.